



소치 동계올림픽 D-16

한국 역대 최다 64명 참가

봄슬레이·루지·스키서 출전권 추가 확보 맨 더 늘어날 듯

한국이 다음 달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역사상 가장 많은 선수를 출전시킨다.

20일 국제스키연맹(FIS)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국가별 출전권 수를 공개한 결과 한국은 알파인스키에서 5장, 크로스컨트리·스키점프·프리스타일 스키·스노보드에서 각각 2장 등 총 13장의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미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5명, 쇼트트랙 10명, 피겨스케이팅 3명, 컬링 5명, 바이애슬론 2명, 봄슬레이 10명, 스켈레톤 2명, 루지 4명의 선수가 확정된 가운데 스키에서 13명이 추가되면서 올림픽 출전이 확실한 선수의 수는 모두 64명이 됐다.

봄슬레이와 루지 등 쇠메 종목과 스키에서 출전권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어 소치로 가는 태극전사의 수는 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6개 종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 선수가 동계올림픽에 나서게 됐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한국 선수가 출전한 동계올림픽은 48명이 나선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다.

선수단 전체로 확대하면 선수 46명, 임원 37명이 출전한 2010년 밴쿠버 대회가 최대 규모였다.

한국 선수단은 23일 결단식을 하고, 다음 달 1일 선수단 본부인 전세 기관으로 장도에 오른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스キー, 빙상, 바이애슬론, 봄슬레이, 컬링, 아이스하키, 루지 등 7개 종목(15개 세부 종목)에서 총 98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국 선수들이 기량을 겨룬다.

알파인스키에서는 한국의 '간판' 정동현(26·경기도체육회)을 비롯해

남자부에서 경성현(24·하이원), 박재윤(20·단국대)이 출전권을 따냈고, '여고생' 김소희(18·상지대관련고)와 강영서(17·성일여고)도 올림픽 무대에 나선다.

크로스컨트리에서는 '엄마 선수' 이채원(33·경기도체육회)이 광주준(21·단국대)과 함께 출전하게 됐다.

스키점프에서는 최희철(33)과 김현기(31·이상 하이원)가 출전권을 확보한 가운데 한국이 예비 출전 순위 1~2위에 올라 있어 선수가 추가될 가능성을 남겨뒀다. 2010년 밴쿠버 대회에 한국 스노보드 선수 최초로 출전한 김호준(24·CJ제일제당)은 2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고, 이광기(21·단국대)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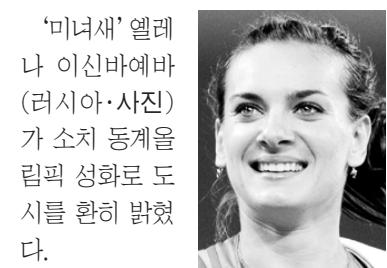
프리스타일 스키의 '모굴 남매' 최재우(20·한국체대)와 서정화(24·GKL)도 소치 땅을 밟는다. /연합뉴스



김연아



'미녀새' 이신바예바 성화로 소치 밝혔다



'미녀새' 엘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사진)가 소치 동계올림픽 성화로 도시를 환히 밝혔다.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은 올림픽 장대높이뛰기 금메달리스트이자 소치올림픽 선수촌장인 이신바예바가 러시아 볼그라드 스포츠팔리스에 있는 올림픽 성화대에 불을 지폈다고 21일(한국시간) 전했다.

올림픽 세단뛰기 은메달리스트 타티아나 레베데바와 세르게이 보케노프 볼그라드 시장이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신바예바와 함께 불을 불었다.

이신바예바가 성화를 받아들으로

프로야구 비디오 판독 확대 검토

KBO, 심판진 물갈이

심판들의 잊은 오심으로 골머리를 앓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판정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2015년 시즌부터 비디오 판독 확대를 신종하게 검토 중이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메이저 리그와 우리의 사정이 달라 당장 비디오 판독을 확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선 현장 지도자를 비롯해 야구 관계자, 팬들의 반응을 다각적으로 수렴한 뒤 내년 도입을 목표로 새 비디오 판독 규정을 연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올해부터 훌륭한 판정에 국한된 비디오 판독을 폐어 또는 파울, 세이프 또는 아웃 판정 등 13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오심을 줄이려면 비디오 판독 범주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각종 사업 수익과 통합마켓으로 양첨난 부(富)를 축적한 MLB 사무국과 예산의 결혼마저 구단에 빼앗간 KBO의 처지는 다르다.

MLB 사무국은 새 비디오 판독을 위해 30개 구장에 자체 마련한 카메라를 12대씩 설치해 판정을 분석할

예정이다. MLB 사무국은 MLB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자체 채널을 통해 전 경기를 중계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자체 방송 네트워크를 차리지 못한 KBO는 현재 비디오 판독을 하려면 국계방송사 TV 캐스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메이저리그처럼 완벽에 가깝게 판독하기 어려운 처지다.

양 총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새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이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살피는 뒤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 내년에 비디오 판독 확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BO는 비디오 판독 확대에 앞서 심판진 물갈이로 오심 최소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달 초 지난 6년간 심판진을 이끌어온 조종규 심판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그를 경기운영 위원으로 선임하고 도상훈 퓨처스(2군)리그 심판육성팀장을 새 심판위원장 밑에 둔 심판 차장직을 폐지하고 팀장 위주로 심판진을 운영하도록 직제를 개편했다.

1·2군 심판진의 기량 차를 줄이고자 하운 경기운영위원을 퓨처스 심판육성위원으로 임명해 오 위원과 함께 2군 심판들의 교육을 책임지도록 했다.

/연합뉴스

'빙속여제' 이상화 기아차 홍보대사

'빙속여제' 이상화가 기아자동차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기아차는 21일 이상화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2월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 및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앞으로 이상화의 이미지를 활용해 기업 PR 광고 시리즈를 제작, 방영하게 되며 올림픽이 끝난 뒤 후원식 등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최초로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00m에서 4회 연속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기아차는 현재 총 16명의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포함해 20여개국 300여명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사진: 기아차 제공

기아차는 21일 이상화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2월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 및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앞으로 이상화의 이미지를 활용해 기업 PR 광고 시리즈를 제작, 방영하게 되며 올림픽이 끝난 뒤 후원식 등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최초로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00m에서 4회 연속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기아차는 현재 총 16명의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포함해 20여개국 300여명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준비 끝" 여자 컬링 대표팀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4강 신화'를 바탕으로 동계 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메달을 노린다. 사진 원

쪽부터 이슬비, 김지선, 신미성

/연합뉴스

기아차는 21일 이상화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2월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 및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앞으로 이상화의 이미지를 활용해 기업 PR 광고 시리즈를 제작, 방영하게 되며 올림픽이 끝난 뒤 후원식 등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최초로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00m에서 4회 연속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기아차는 현재 총 16명의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포함해 20여개국 300여명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사진: 기아차 제공

기아차는 21일 이상화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2월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 및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앞으로 이상화의 이미지를 활용해 기업 PR 광고 시리즈를 제작, 방영하게 되며 올림픽이 끝난 뒤 후원식 등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최초로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00m에서 4회 연속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기아차는 현재 총 16명의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포함해 20여개국 300여명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사진: 기아차 제공

기아차는 21일 이상화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2월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 및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앞으로 이상화의 이미지를 활용해 기업 PR 광고 시리즈를 제작, 방영하게 되며 올림픽이 끝난 뒤 후원식 등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최초로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00m에서 4회 연속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기아차는 현재 총 16명의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포함해 20여개국 300여명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사진: 기아차 제공

기아차는 21일 이상화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2월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 및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앞으로 이상화의 이미지를 활용해 기업 PR 광고 시리즈를 제작, 방영하게 되며 올림픽이 끝난 뒤 후원식 등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최초로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00m에서 4회 연속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기아차는 현재 총 16명의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포함해 20여개국 300여명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사진: 기아차 제공

기아차는 21일 이상화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2월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 및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앞으로 이상화의 이미지를 활용해 기업 PR 광고 시리즈를 제작, 방영하게 되며 올림픽이 끝난 뒤 후원식 등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최초로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00m에서 4회 연속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기아차는 현재 총 16명의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포함해 20여개국 300여명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사진: 기아차 제공

기아차는 21일 이상화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2월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 및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앞으로 이상화의 이미지를 활용해 기업 PR 광고 시리즈를 제작, 방영하게 되며 올림픽이 끝난 뒤 후원식 등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최초로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00m에서 4회 연속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기아차는 현재 총 16명의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포함해 20여개국 300여명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사진: 기아차 제공

기아차는 21일 이상화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2월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 및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앞으로 이상화의 이미지를 활용해 기업 PR 광고 시리즈를 제작, 방영하게 되며 올림픽이 끝난 뒤 후원식 등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최초로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00m에서 4회 연속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기아차는 현재 총 16명의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포함해 20여개국 300여명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사진: 기아차 제공

기아차는 21일 이상화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2월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 및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